

중도일보

1951년 창간

中都日報

joongdo.co.kr

미소미, 대호간척지에서 생산한 당진쌀 해외로 수출

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일품

박승균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3-04-21 07:01



쌀 수출 출고식 참석자 모습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김재선)는 20일 대호간척지 농업시범단지 내에서 임대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(주)미소미에서 생산한 수출용 쌀 출고식에 참석해 당진쌀 20㏞을 캐나다·네덜란드·싱가포르로 수출했다고 밝혔다.

당진지역 대호간척지 농업시범단지내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일품인 해나루쌀과 당진쌀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에게도 인정받고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.

지난 해에도 싱가포르·몽골·아랍에미리트·네덜란드 등으로 당진쌀 120㏞을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수출 1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.

(주)미소미 이태호 대표는 "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당진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내줘 지속

적으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"고 말했다. 당진=박승균 기자

프린트

취소